

“보고 들을 줄 알아야 진면목 만나”

고은 시인 초청 동국대 정각원 교직원 법회

주제 '불교와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

동장군의 기세가 무서운 겨울날인 12월 1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고은 시인 초청 교직원법회가 열렸다. 한국 문학의 거장이라 일컫는 시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추운 법당에 구름처럼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불교와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에서 시인은 자신이 출가를 했던 경험과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 진리의 길 등을 시대에 비추어 얘기했다. 스스로 '내가 걸어온 산길'이라는 소재목을 붙인 이 강연에서 온몸으로 시대를 살아온 시인의 삶과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을 한번에 들을 수 있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bwhs@hyunbul.com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제목은 편하게 '불교와 더불어 시대와 더불어'라고 지어 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우 애매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고쳐봤습니다. '내가 걸어온 산길'이라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불인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 스님과 소동파 시인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은 꿈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는 꿈보다는 해석하는 시를 많이 썼죠. 송나라 최고의 시인은 소동파입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대가죠. 또 길 가다가도 스님들을 만나면 수작을 거는 시인입니다. 이런 소동파가 불인 선사를 만나죠. 법을 청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보 유정 설법을 들으면 뭘해.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그 뒤로 소동파는 길 가다가 어떤 풍경을 보고 바로 무정 설법을 깨칩니다.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들은 팔만 사천의 그 소식을 뒷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까'라는 내용의 시를 씁니다. 이분은 또한 시련도 많이 겪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배도 가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했지요. 고생한 사람 얘기를 하다보니 송산 스님 생각이 나네요. 송산 스님과 저는 1961년 지금의 불교신문인 '대한불교'를 창간했습니다. 송산 스님이 발행인이 되고 제가 주필 겸 교정 겸 해설사였죠. 그렇게 인쇄소 다니며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살림을 차린 거죠. 이후에 송산 스님은 홍콩에 가서 교단을 차리면서 세계 불교를 주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서 버클리 쪽에 집을 한 채 빌려서 작은 법당을 차리고 포교를 했지요.

그러다가 보스턴 쪽으로 가 세탁소를 차렸는데 거기서 하버드대 학생들을 만나서 최면술을 걸어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죠. 스님이 최면술을 할 줄 알았어요.

스님이 이렇게 하나둘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송산 스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소련(러시아)까지 들어가서 전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서도 우리 불교가 알려져 있습니다.

송산 스님은 궁극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오직 모를 뿐' 이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지요. 자신이 걸어온 길로 개척한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

을 겁니다. 송산 스님처럼 우리도 화두를 개척해야 합니다. 중국 것만 가지고 와서 화두라고 하지 우리의 화두가 없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에서는 아는 것만 법문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거지요. '내 아는 바를 너희들은 들어서 터득할지' 이런 거지요.

삼보에서 말하는 승보는 스님이 중심이 아니라 스님 재가자 할 것이 모두가 모여서 꽃잎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가 함께 피어올 때 그것이 진정한 승가의 의미일 것입니다. 비구 혼자 승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비구니 혼자 승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며 우바이 혼자서도 우바새만으로도 승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이 넷이 합해져야 그것이 승가가 형성됩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계급이 없습니다.

'오직 모를 뿐' 송산 화두처럼 우리만의 화두 개척 해야

'부처되면 부처라는 이름 없어 가는 과정이 부처의 길이죠'

부처가 되면 부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죠. 우리 불교가 결과, 값 매겨진 것만 높이고 그 과정을 잘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쯤은 의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알 수 있어도 아는 것을 조금씩 즐기세요. 천천히 아세요.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합니다. 천가누설하지 말고. 참 멋진 말이에요. 근대의 악은 천가누설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근대 문명이라는 게 심하게 얘기하면 악이예요. 지혜를 쉽게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이치 우주에 대해서 원히 알면 그건 실례예요. 이집트의 여신 중에 이시스가 있지요. 얼굴이 가려져 있지요. 베일을 걷자마자 죽습니다. 이처럼 너무 발가벗겨져 있는 것보다 옷을 두껍게 입고 저 뒤에 숨어 있어야 좋아요. 부처님 복장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다 안 열어 봐도 돼요.

절에서 풍경소리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풍경소리가 들리죠. 말 하자마자 귀가 듣자마자 알아듣는지도 몰라요. 충분히 이런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내부는 항상 외부로 지향합니다. 평장을 쫓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천천히 나갑니다. 문을 열어 놓으면



고은 시인은 ... 고은 시인은 1933년 군산 출생으로 1952년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1958년 시 '폐결핵'으로 등단했다. 1962년 환속한 시인은 1970년 이후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자신만의 문학세계와 가치관을 전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인 25년 역작 시집 <만인보>를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옵니다. 교류를 합니다. 이 세상은 늘 움직이고 변화하지요. 이게 무상입니다. 진리 자체도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진리만이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의 진리는 가설입니다. 새로운 진리는 계속 와요.

제가 출가를 얘기를 잠깐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당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전후방이 모두 전쟁터였어요. 한반도 한국 전쟁 모두 전쟁터였어요. 한반도는 초도화가 됐어요. 산천이 초도화되고 절도 타버리고 그런 아비규환의 세상이었지요. 여기서 제가 살아남은 거예요. 제 또래 젊은이 절반이 죽었는데 말이죠.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자책감이요. 가는 곳마다 시체였어요. 시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모든 게 폐허였어요. 그때 스님 한 분을 만났지요. 출가는 선택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서 길이 불뚝이 스님을 따라갔어요. 스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 왜 따라오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길가에서 선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 스님한테 '효봉한테 가거라' 라는 말을 받았어요. 거기가 통영의 미래사였

어요. 그곳에 법정 스님도 있고 그랬지요. 거기서는 좋은 가사도 없었고 양말은 구멍나고 찢는 옷도 없어 소금으로 양치하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효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된 거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루 한 끼만 먹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중이 될 수 없는 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석으로 가서 영입을 했어요.

물론 바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불교정화 운동이 있을 때 비구종단 대변인으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문인이 돼요. 제가 1958년 시 '폐결핵'으로 <현대시>에 추천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하고 <피안감성>이라는 처녀시집을 해인사에서 내게 되죠. 그렇게 저는 환속을 하게 됐죠.

오늘 제가 소주제로 '내가 걸어온 산길'이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어렵습니다.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후기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당시 승려와 친해지신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추사가 초의를 친구로 선택한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까. 이처럼 필사처럼 참다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나을 존자가

피를 부리다가 혼나고 눈을 떠 열심히 공부해 천안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금강산의 눈이 있으면 진면목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미인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해골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진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타력의 힘을 통해 자력의 위대성을 알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불함으로써 부처님을 느끼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금강'도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스킨십 같은 거 말입니다. 만나서 껴안거나 악수해야지 실감납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건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데서 있는 것을 꺼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질 때 소리가 오는 것입니다.

진면목은 소리로 옵니다. 눈을 거치고 몸을 거쳐 귀로 옵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말하기 앞서서 말이 들어 옵니다.



12월 1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100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 고은 시인의 강연을 경청했다.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남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

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달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풀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달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달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있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